

직선·간선·현행 유지 원장 선출 방안은?

조계종 새신위, 총무원장 선출 정책 공청회

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 총무원장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으로 현재 총무원장 선출은 간접선거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저간의 현실이다.

조계종 새신위원회(위원장 밀운)가 10월 24일 '총무원장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도 종단 안팎의 우려를 풀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공청회는 직접선거제도 도입을 비롯해 간접선거 확대, 현행제도 유지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다.

직선제 도입을 주장한 중앙총회의원 원경 스님은 '제한적 직선제'와 '전면적 직선제'라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제한적 직선제는 법계를 중역과 정덕 이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고, 전면적 직선제는 건덕과 계덕 법계까지 선거권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스님은 "제한적 직선제의 경우 전체 승려의 66%인 8609명이, 전면적 직선제는 13116명이 선거권자가 된다"며 "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수장에 대한 정당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게 돼 결과적으로 종단의 위상과 품격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정책특별보좌관 덕문

스님은 선거인단의 전면 조정을 통한 간선제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현행처럼 교구별 선거인단을 200명 이하로 할 경우 10명으로 하고, 200명 또는 300명 당 1명씩 추가로 배정해 최대 20명 이하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원경 스님
"공의 반영 위해 직선제 필요"

총무원장 정책특별보좌관 덕문 스님
"선거인단 조정, 방식 변화"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주경 스님
"대중공사 정신 회복 급선무"

선거인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선거인단 선출방식의 문제는 선거인단 인원 조정보다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 본사 주지의 권력 집중 등의 여러 문제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아울러 중앙총회의원들에게 부여되는 선거권 규정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덕문 스님은 비구니 스님들의 권의 신장을 위해 최소 20%

까지 선거인단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중앙신도회장, 24개 교구 신도회장이 참여하는 재가자 선거인단 구성도 제안했다.

현행 제도 유지를 주장한 중앙총회의원 주경 스님은 대중공사 정신 회복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먼저 그간의 종현, 종법의 변화를 살핀 주경 스님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총무원장 선거제도의 직선제나 확대에 있지 않다"며 "금번 15대 총회에서 제정된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교 고유의 대중공사 정신을 회복하는 노력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 대중들의 질의와 의견 개진도 이어졌다. 선원수좌회 사무처장 강철스님은 "직선제는 동의하지만, 비구니 참종권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구니 참종은 좋지만 비구니 참종권 부여 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구니 총회의원 경륜스님은 "직선제는 반대다"면서 "다만 비구비구니 비율은 비슷한 만큼 당연한 것은 비율로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신위원회는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년 3월 중앙총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연탄처럼 따뜻하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0월 25일 서울 종로구 부임동 일대에서 한화호텔&리조트(대표이사 홍원기)와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만드는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처럼 뜨겁게'를 진행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80여 명이 동참해 독거 어르신 6체에 연탄과 쌀 그리고 김치를 전달했다.

912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안거제도 공청회 열어
조계종 총립법 개선 좌담회
대선 후보들의 종교인권 정책
포교원 제2기 위원회 출범

시방세계 5
미리보는 직각문화전승관



학술 9
동산 스님 선사상 주제
한국불교학회, 전국 학술대회

지역 10·11
전북불교문화제 오류 많아
전등사 무절전 개원

현대불교 범공양
ARS 후원
060-700-1080

제24회 포교대상에 성일 스님 선정

조계종 포교원, 수상자 발표...11월 9일 시상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0월 22일 포교대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24회 포교대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포교대상(종정상)에는 수일 용주사 말사인 신홍사 주지 성일 스님이 선정됐다. 관련 기사 16·17면

공로상(총무원장상)에는 적운 스님(광골사 주지), 해원 스님(한마음선원 주지), 장명 스님(적지사 총무), 이윤희(법어사 신도회장) 불자가 각각 선정됐다.

또 원력상(포교원장상)에는 영진 스님(용화사 주지), 계호 스님(진관



성일 스님

사 주지), 철우 스님(동련 이사), 지강 스님(철장사 주지), 등 16명을 선정, 발표했다.

한편, 제24회 포교대상 시상식은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봉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적운 스님

정명 스님



해원 스님

이윤희 회장

“불자는 자비로 중생 인도해야”

제15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서 선언문 채택 10월 22일 일본 요코하마서 5백여명 참석

한중일 불교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일중한국제 불교교류협회, 중국불교협회 등 3개국 불교대표단 200명과 불자 등 500여 명은 10월 22일 일본 요코하마 입정교성회에서 제15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일환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일본, 중국, 한국 불교대표단 순으로 각각 20분간 의식

을 진행했다. 한국측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대행)·인공 스님(태고종 총무원장)과 혜정 정사(진각종 총무원장) 등 10여 명이 태고종 총무원장 능해 스님의 집전으로 스오 분향례 △침철례 △상축(축원, 무원 스님 봉독) △반야심경 등의 의식을 진행했다.

법회 직후 3개국 불교대표단은 기

범활영과 3개국 대표들의 기념식수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입정교성회 4층에서 열린 국제학술강연회에서 3개국 불교대표단은 현시대 불교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공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불교계는 공동선언문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관용성, 다양성은 지금과 같은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교류회의에서도 인류의 공생, 세계의 조화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왔다”면서 “슬프게도 인류의 공생, 세계의 조화는 아직 달성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불교도는 그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아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또 “불교도는 불교의 가르침으로 중생을 인도해야만 한다. 자비(慈悲)의 정신, 관용의 정신을 근거로 행동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들에게 그치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과 함께하여 삼국 공동의 선두자로서 행동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김주일 기자



10월 22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5차 한중일 불교교류대회에서 한국대표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사진 맨 오른쪽) 등 3국대표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새법당 준공법회

수많은 인연들의 한결같은 정성과 원력으로 부처님 도량이 장엄되었습니다. 진리의 탑 등글어 우주의 빛을 발하고 바다와 하늘, 산을 품은 푸른 기와 우뚝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량 불사 이제부터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사람 사람이 부처임을 일깨우신 부처님의 사자후 이 도량에 드는 일체 중생 듣게 하며 그 소식 들은 이 누구나 끝끝내 진리의 바다에 이르길 깊이 발원하며 끝없는 불사의 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간의 감사함 널리 회향코자 준공법회를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귀한 걸음 하시어 너른 덕 베풀어 주십시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 삼배

- 일시 | 불기 2556년 11월 11일(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 문의 | 051)403-7077